자동차업계, JD파워 공신력 정말 믿고 있나

지난 6월, 제네시스, 기아자동차 및 현대 자동차가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인 JD파워 (J.D. POWER)의 2019년 IQS(초기품질조사) 에서 각각 1~3위를 휩쓸었다는 낭보가 수 많은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2000년 IQS에 서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외한 일반 브랜드 25개 업체들 중에서도 22위였 으며 기아차는 업계 최하위였던 것에 비하 면, 분명 장족의 발전을 한 것으로 그룹 오 너인 정몽구 회장의 품질 향상에 대한 열의 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여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과연 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IQS 설문 조사는 엔진 및 변속기 결함 같 은 중대 결함과 IT 기기의 사소한 결함도 가 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똑같은 1점으로 계산 한다. 또한 설문지에는 차량의 품질뿐만 아 니라 인테리어, 금융 서비스 및 온라인 구매 서비스 같은 차량의 품질과는 전혀 무관한 항목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너무 길다는 지 적도 있었다.

차량의 품질에는 동력 성능, 연비, 안전도, 장기 내구성 등 초기 품질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 많고, 중고차 가격을 좌우하는 것 도 초기 품질이 아니라 내구 품질이다. 도요 타에서도 "확실한 품질 지표는 시간이다"라 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 구매한 지 3년이 지 난 차량을 조사하는 JD파워의 내구성 품질 조사(VDS) 순위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2년 연속 하락했고, 기아차는 급락했다.

약간 다른 주제이지만, 벤츠가 최근 AS를 받은 고객들에게"만족도 평가 설문에 10점 만점을 주면 10만원 상품권을 선물하겠다" 라는 문자를 보낸 일이 있다. 현대도 IQS 조



이정주 칼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사 대상 차량만을 특별 관리하는 작전이 있 었다거나 JD파워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설문 조 사 조작들을 한다는 것은 저의가 매우 불순 해 보인다.

현대·기아가 렉서스, 벤츠, BMW, 볼보, 포르쉐, 캐딜락, 인피니티, 아우디, 아큐라, 알파로메오, 랜드로버, 재규어 등보다 저조 한 성적을 받으면 프리미엄 브랜드라며 그 들을 제외시켜 순위를 임의로 높여 발표하 고, 그들보다 좋은 결과를 받으면 프리미엄 브랜드까지도 압도했다고 광고한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스스로를 프리미엄 브랜드 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급한 일반 브랜드 라고 홍보하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다.

'JD POWER IQS 2019' 발표 직후 구글링 한 6개 기사들 모두의 댓글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글은 단 한 개도 없었으며, 부정적 인 글이 38%, 관련 없는 글이 62%였다. 작 년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IQS에 대해 신뢰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90일 동 안 차를 사용하고 평가를 내린다는 점을 부 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조사 발표에 대한 긍정은 전혀 없고 부정적 의견 중 상당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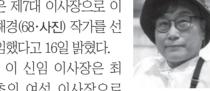
"헛소리, 쓰레기, 가짜 뉴스, 광고 회사"등의 매우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하여 비판한 것 은 JD파워의 품질조사에 대한 소비자 평가 가 과거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년에도 IQS 2018 관련하여 미국 내 SNS 상의 여론을 조사했을 때, JD파워의 발 표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 보였으며, 그나 마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적어도 SNS 상의 댓글들을 보면 JD 파워나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미국인들 의 신뢰도는 매우 낮아 보인다. 특히 전 세 계와 미국에서 각각 상위 1%에 드는 유명 자동차 유튜버인 스코티 킬머는 IQS에 대해 "자동차 판매 역사상 가장 큰 웃음거리"라 고 혹평하면서, "JD파워는 돈을 받는다. 광고 회사다"라는 말을 몇 번씩 반복하며 언론의 평가와는 180도 다르게 마구 비웃어가며 신 랄하게 비판했다.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게 포 장하여 광고하고 싶은 것이 기업의 심리라 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당당하지 못한 사 실들이 있음에도 과대 포장까지 하면서 국 내 소비자들을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대다 수 소비자들은 미국에서 수상했다는 말만 듣고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구입 하려는 자동차를 동일시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한국 에서도 품질이나 소비자들에 대하여 미국 에서와 같은 열성을 보여 주기를 바라고, 미 국에서는 1997년부터 베르나 같은 최저가 차량까지도 10년/16만km 품질보증을 실시 했는데 한국에서도 동일한 품질보증을 속 히 실시해 주기 바란다.

제7대 이사장에 이해경 작가 만화영상진흥원 여성 첫 선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은 제7대 이사장으로 이 해경(68·사진) 작가를 선 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초의 여성 이사장으로

이 이사장은 2021년 7월까지 진흥원을 이

성 사

문 대통령-5당대표 회동 난국 타개 전환점 되길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올 해 상반기 내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 속처리안건)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청와 대가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5당 대 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한국당이 대통령과의 '일 대일 회동'이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3 당 대표 회동'을 고수해 성사되지 못했다.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으로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회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해법 마련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여야 5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 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또 각 당 대표들이 제한 없이 논의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 정예산 등 쟁점 현안도 두루 거론될 것이라는 관 측도 나온다. 징용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의견 과 군 기강 해이 문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일본 수출규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되도록 방치한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 논의 도 못 다룰 이유가 없다.

정치권은 그동안 상호 비방에 열을 올리며 반 목과 대립을 일삼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아 왔 다. 소통은 없고 정쟁만 난무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여야가 오랜만 에 만나 날선 비판과 자기주장만 하고 헤어진다 면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겠는가. 여야가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협력하는 모 습을 보이는 것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파적 이익을 뒤로하고 기꺼이 협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품·소재 '독립선언'··· 또 '립서비스' 머물면 안 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취임100 일 메시지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중소벤 처기업들과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독립선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제조와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부 품·소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강화를 들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취임이후 강조해온 스마트공장 을 통한 제조혁신, 제2벤처 붐을 추진과제로 삼겠 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일본을 언급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 기로 한일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해당 발언은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 전략인 동시에 산업체 질개선을 통한 '극일'비전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 이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 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과의 간담 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중소기업계 간담 회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이 같은 방향은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지만 실

행력이 문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부품·소재산 업을 육성하겠다고 숱하게 강조해 왔지만 되레 국가연구개발(R&D) 투자를 줄이면서 지난해 투 자비중은 급기야 전체의 3%대로 추락했다. 눈앞 의 단기성과에만 급급한 예산집행으로 일관하면 서 국가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소홀했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기업으로 전이돼 민간투자 위 축마저 부르는 결과를 불렀다.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R&D 투자홀대로 '골든타임'을 놓친 영향이 크다. 이번 사태로 우리산업이 '모래위에 지은 성'이었 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 는 소재·부품 국산화는 우리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위해 꼭 이뤄야할 절체절명의 사명이다. 부 디 이번만큼은 또 다시 '립 서비스'에 머무는 우를 범하지 말고 탄탄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극 일'을 넘은 국가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인 사 통계청 ◇국장급 인사 △경제 동향통계심의관 안형준 ◇과장 급 인사 △경제동향통계심의관실 산업동향 과장 김보경 △ 〃 서비스업동향과장 민경 삼 △ " 물가동향과장 김윤성 △사회통계 국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상영 △ // 복지통 계과장 김서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기술단장 최 기용

BNK금융지주 ◇부장대우 승진 △경영지 원부 지영선 ◇3급 승진 △검사부 정해철 △경영지원부 황현이

부고 △이삼섭(전 부산남부경찰서 경감)씨 별세, 명숙·민숙·균정· 현정(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씨 부친상, 김규화(그룹원 이사)·심환기(자영 업)·정환보(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씨 장인

상 = 15일 오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2 호. 발인 18일 오전 7시30분. 02-2030-4444 △김월순씨 별세, 구교용(육군정비창 주

무관)·교성(BNK금융지주 상무)씨 모친상 = 16일 오전, 부산시민 장례식장 VIP실, 발인 18일 오전 051-636-4444

△오연근(전 대일고등학교 교장)씨 별세, 오지환(인텍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창민(경 북대 화학과 교수)씨 장인상 = 16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031-787-1501

△주향랑씨 별세, 곽창호(전 포스코 경영 연구원장)·경호(광운대 교수지원팀장)·선 화·혜숙·은정씨 모친상, 정영선(전 오산대 총장)·이근창(건설업)·황호성(쌍용 로지스 틱 상무)씨 장모상 = 16일 낮 12시7분,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3410-6912



진흥원이 선날 개죄한 제7기 이사회에서 만 장일치로 추대됐다. 그는 1974년 만화 '현아 의 외출'로 데뷔해 10여년간 만화왕국·소년 동아일보·계간만화 등에서 작품을 연재했 다. 2015년에는 웹툰 '겨드랑이가 가렵다'를 연재하는 등 한국 만화계에서 왕성한 활동 을 이어온 거장이다.

끌게 된다.

아시아타임즈 www.asiatime.co.kr 대표 전화 (02) 801-1800 팩스 (02) 801-1819

발행·대표이사 조 용 하 사장 겸 편집국장 임 춘 성 주필 강 현 직 인쇄인 이 정 자 2013년 7월 1일 창간 2013년 1월 10일 등록번호 서울 가 0992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고 국 (02) 801-1814 사 회 부 (02) 801-1861 업 부 (02) 801-1855 국 (02) 801-1850 문 화 부 (02) 801-1861 스 (02) 801-1859 편 집 부 (02) 801-1851 금융증권부 (02) 801-1823 정치경제부 (02) 801-1823 건설부동산부 (02) 801-1852 부 (02) 801-1822 윤 전 부 (02) 3666-0041~3 (외주 인쇄 가능)

> (우)100-01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1길 27 프라임빌딩 8층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한평 초역세권, 10만 대학가 수요확보, 전실 복증형 설계, 풀옵션 시스템







· 신청계좌 : 국민은행 103001-04-264881 · 예금주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청약금 200만원 ※ 상기청약금액은 미 계약시 100% 전액 환불됩니다. ※상기계좌가 아닌 타 은행 및 타 계좌번호로 입금시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미적용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5호선 장한평역까지 도보 3분, 직선거리 200m 가 채 되지 않는 오피스텔이 있어 화제다. '장한평 역 레아 오피스텔'이 그 주인공이다. 초역세권을 선 점한 것은 물론 도보 1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 어, 강남권까지 이동이 편리하며 천호대로, 동부간 선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닿을 수 있다.

성동구 용답동 229-11에 들어서는 장한평역 레 아 오피스텔은 지하2층~지상17층 규모에 오피스 텔 171실, 오피스 17실, 상가 1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 실은 복층 특화설계로 넓은 개방감과 탁월한 공간활용성이 돋보인다. 전면 풀창호 시스템을 도 입하여 채광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가전가 구를 풀옵션으로 제공해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 들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한평역 레아 오피스텔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 백화점, 동대문구청, 한양대병원 등 성동구와 동대 문구를 아우르는 풍부한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 어 최상의 주거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중랑천과

중랑재생센터의 테마파크도 바로 앞에서 위치 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뛰어난 주거가치를 지닌 장한평역 레아 오피스텔은 투자가치 역시 월등하다. 인근에 한양 대, 시립대, 세종대, 건국대 등이 포진해 있어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대학가 학생수요를 확보, 공실 우려가 전무하며,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업, 장 안평 자동차매매단지 재정비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등다양한개발호재의수혜를누릴수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장한평역 레아 오피스텔은 주변 개발 및 주 변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지가의 동반상승으로 시세차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장한평역 레아 오피스텔의 홍보관은 성동구 마 장동 791-1 열산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 전에 연락 후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자세한 상담 을받을수있다.

문의전화: 02-2299-3663

2019년 7월 17일 수요일.indd 2019-07-16 오후 4:33:1